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8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9월 15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차 희망퇴직까지 조합원 흔들림 없어

추석기간 앞두고 2차 희망퇴직 공고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도 PLA자본의 추잡함은 끝을 몰랐다. 1차 희망퇴직에서 큰 재미를 못봤다고 생각했는지 추석을 코앞에 두고 2차 희망퇴직을 또 공고했다. 4일동안 진행했던 1차 희망퇴직에 비해 훨씬 긴 2주간의 시간을 두었다.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2일까지 2차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기분좋은 명절을 맞이해야할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자본의 추잡함에 치를 떨며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다

PLA자본이 추석연휴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2차 희망퇴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 PLA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실제로 사업장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한다면 가장 먼저 사무직들이 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장이든 희망퇴직 1순위는 사무직이었다. 그러나 지금 PLA에서는 사무직 어느 누구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 PLA자본이 노리는 것이 현장직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현장직 조합원들을 다 내보내면 금속노조도 정리할 수 있고, 싼 인건비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PLA가 해온 작태들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피땀흘려 지켜온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고 있다. PLA자본이 망쳐놓은 공장을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자본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 조합원들은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공장장, 너만 나가면 돼

PLA지회는 공장장 퇴진만이 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껏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연명해온 공장장이 이제는 제발로 나갈 때가 됐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 공장장과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지회는 공장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본사 대표이사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한 목숨 위해 직원들부터 내치려고 하는 공장장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민주노조 사수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 인근의 샘머리공원에서는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유성지회, 콘티넨탈지회, 보쉬전장지회 뿐만 아니라,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확대간부 동지들까지 함께 한 자리였다.

이날 함께 한 경기지부 SJM지회 정준위 수석부지회장은 “불법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조합원들이 승소했다. 오늘 회사의 상고 마지막 날이다” 며 “만약 사업주가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면 조합원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조합원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며 SJM지회의 승리의 기운을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 전했다.



한편, 이날 콘티넨탈지회는 어용노조가 긴급하게 교섭을 재개하여 합의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장 투쟁으로 전환했다. 어용노조는 결국 조합원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매주 월요일 촛불집회와 매일 법원앞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검찰이 노조파괴 공범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일조했다면 법원은 법대로 사업주들을 처벌해야할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지난해 두 배에 육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일수가 올해 7월까지 346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1년간 이뤄진 직장폐쇄일수(179일)를 벌써 두 배 가까이 웃돈 것이다.

14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이후 잠잠했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폐쇄일수는 346일로 집계됐다. 8개 사업장에서 직장폐쇄가 이뤄졌고, 1회 평균 43.3일 지속됐다. 지난해 내내 이뤄진 직장폐쇄일수는 179일이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직장폐쇄는 지난해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직장폐쇄 1건당 평균지속일수는 57.4일로, 당시 10개 사업장에서 574일간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SJM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올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직장폐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직장폐쇄 유형을 살펴봤더니 단순히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사업장 복귀에 나서기 직전에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업무복귀 이후에도 이를 지속한 속초의료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폐쇄 중단을 조건으로 무분규 확약서를 강요(태광 티브로드)하거나, 원청이 직접 대체인력 투입(씨앤앰)에 앞장선 것도 새로운 유형으로 꼽혔다.

장 의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에 신고만 하면 무기한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가 불법·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고 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나올까?

세 차례나 연기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법원이 예고한 대로 18일과 19일에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선고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달 20일과 21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각각 이달 18일 오후(민사 41부)와 19일 오전(민사 42부)으로 연기됐다.

지난 18일 현대차 노사와 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는 내년 말까지 이미 신규채용된 2천38명을 포함해 4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 상호취하를 전제로 특별고용시 사내하청 근속과 경력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의 소송취하가 잇따랐다. 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현대차 사측이 소송취하에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경우 현대차 사내하청 직접생산공정의 상당 부분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특별고용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 현대차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나 검찰의 기소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이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세 건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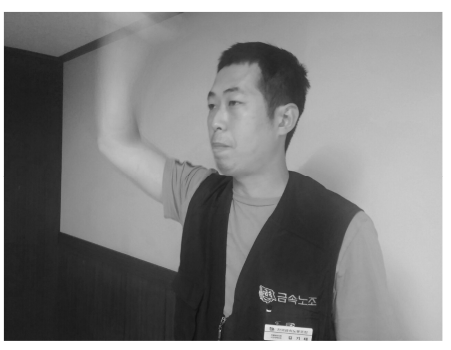
<9.3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결의대회>



<9.3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결의대회>



<9.3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결의대회>


<9.12 PLA지회 중식집회>